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누구나 한번쯤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오래도록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써서 남을 돕는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소방관 이성촌 씨는 그렇지 않다. 그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은 '열심'으로 전국을 누비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기를 당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할 때도, 화재 진압에서 전신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도 그는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온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영광의 상처를 기억합니다

1998년 12월의 어느 날 새벽 홍은동의 한 산동네에 화재가 발생했다. 산동네이다 보니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사람들을 구조해 내고 화재 진압을 하던 중 누군가 소리쳤다.

“안에 사람이 남았다!”

그때 한 남자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방화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방수복 차림이었다.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거세게 역류하는 불길이었다. 그 불길이 남자의 전신을 삼켜버렸다. 남자는 전신 35%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 실려가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소방관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흉터를 보고 파충류 같다, 외계인 같다고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 심지어는 대중교통과 목욕탕도 이용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 버렸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에게 힘이 되어 준 것이 바로 고아원 아이들이었다.

이성촌 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화상을 당하기 1년 전인 1997년 한 고아원에 훈련을 나갔을 때부터였다. 그곳 아이들이 케이크를 살 수가 없어서 초코파이를 쌓아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생일이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봉사활동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고아원에서 그의 호의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한번 선심 쓰고 다시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촌 씨는 진실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그곳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생일을 챙겨주고 어린이날이나 졸업식 등 특별한 날에는 어김없이 아빠 노릇을 해주었다.

“생일마다 케이크를 가지고 가고 꽃다발도 주고, 유치원 졸업식, 어린이날 행사 등에도 참석해서 아빠 노릇을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오히려 내가 힘을 얻고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촌 씨는 이제 화상의 흉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상처라 말한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119 아빠가 되어 보낸 세월이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 20년이 다 되어 간다. 그에게는 이제 장성한 딸들이 70명도 넘



서대문 소방서 이성촌 소방관



이발과 설거지 등 소소한 도움을 주고있는 '참사랑 나눔이' 회원들

는다. 이미 성인이 되어 자기 길을 찾아간 딸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인연은 여전히 이어진다.

“아빠, 저 결혼해요.”

“아빠, 우리 첫째 돌이에요.”

“아빠, 첫 월급 받았어요.”

아빠, 아빠, 아빠. 그에게 이 아빠라는 호칭만큼 정겨운 것이 없다. 어른이 된 딸들이 잊지 않고 연락을 줄 때마다 이성촌 씨는 가슴이 뭉클하다. 잘 자라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정을 잊지 않고 연락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혈연으로 낳은 자식은 아니라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이성촌 씨에게는 계속해서 딸이 늘어난다. 장성한 딸도 딸이고 요즘 고아원에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꼬맹이들도 그의 딸이다. 그 아이들에게 이성촌 씨는 여전히 119 아빠로 통한다. 가정에 두 딸이 있지만 절대로 봉사하는 장소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그곳 아이들이 자기를 가짜 아빠라고 생각하게 될까 봐,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낄까 봐” 그렇단다.

이성촌 씨는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지만 정작 본인은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남을 도울수록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다는 것이다.

밀저도 좋다 주면서 살자!

고아원을 오가며 아이들을 챙겨주던 그가 좀 더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2001년 무렵이었다. 그해 3월 그는 홍제동 화재 현장에서 동료 소방관 6명을 잃었다.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것은 소방사상 처음일 정도로 끔찍한 화재였다.

“홍제동 화재로 순직한 동료 중에는 함께 봉사하던 사람, 후원금을 내면서 마음을 모아주던 친구도 있었어요. 살아 있었다면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을 사람들이었지요. 혼자 살아남고 보니 내가 그분들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동료를 잃은 슬픔은 컸지만 그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값지게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001년 4월 ‘사랑나눔’이라는 봉사활동 카페를 만들고, 중증장애인 시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기피하는 곳, 알려지지 않아 도움이 손길이 더 절실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기로 했다. 그의 뜻에 동참하고자 모인 사람은 모두 7명. 비록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조금씩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후원도 늘어나면서 수녀님이 운영하는 공부방, 결손가정 공부방 등 여러 방면으로 봉사활동의 폭이 늘어났다. 이성촌 씨는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때도 있었지만 봉사활동만큼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성촌 씨가 찾아가면 장애 아동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 한 사람, 한 사람씩 품에 안긴다. 그러면 이성촌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안아 주고 흐르는 침을 닦아주고 그들이 흘린 음식을 같이 먹기

도 하면서 활짝 웃는다. 장애 아동들의 침도 그들이 흘린 음식물도 그에게는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이희선 씨는 이성촌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성촌 소방관이 팀장으로 있는 서대문 소방서 구조대. 민첩하게 구조를 떠나는 '뜨거운 형제들'

“이성촌 소방관을 통해 가식 없는 봉사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좋은 일을 할 때면 솔직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 이성촌 소방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 분을 보면서 봉사란 남는 시간에 좋은 일 하는 정도로만 여기던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봉사란 행복을 배우는 시간이더라고요.”

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감동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이성촌 씨. 그의 좌우명은 '밑져도 좋다, 주면서 살자!'이다. 부모 없는 아이들, 장애 아동들을 위한 봉사에서부터 '셰이브더칠드런'을 통한 국제 후원, 사후 각막과 장기 기증까지, 그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명에게라도 더 주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그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의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준다. ✿

Interview

이성촌 / 서대문 소방서 소방관

“봉사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Q. 특전사를 하다가 소방관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셨는지요?

A. 자기 생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멋져 보였어요. 군대에서 특전사 생활을 7년 넘게 하다가 전역해서 세 번의 도전 끝에 소방관이 되었거든요. 실제로 소방관 생활을 해보니깐 더 좋아요. 직업이라는 게 자기 밥벌이인데, 그 생업이 자기 밥벌이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것을 알아줄 때 가슴 뿌듯해요.

Q.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마음이신지요?

A. 비록 나에게 징그러운 화상 흉터가 생겼지만 혼자서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가면 목발로 겨우 걷는 친구, 꼼짝 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 친구, 무릎으로 또는 배로 마치 아기들처럼 기어 다니는 친구, 밥 한 숟가락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몸을 가누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누구하나 “나는 왜 이래?”라는 말을 하는 애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원망하지 않고 겸허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요. 나태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오게 되지요.

Q. 14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A.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것이지요. 또 계속하다 보니까 후원도 좀 늘어나고 힘이 됩니다. 후원이 늘어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가치 있는 일이 커지는 걸 보면 참 신나요.

Q. 주변에 봉사를 권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A. 침을 흘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들이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마음이 순수해요. 우리는 가식으로 남을 대하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런 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제가 오히려 살아갈 힘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봉사하면 되냐고 묻곤 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요. 그냥 가자, 그냥 가서 얼굴 보여 주고 친구네 놀러간 것처럼 같이 밥도 먹고 장난도 치고 하자, 그게 가장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도움이고 또 오래 봉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합니다.